

# 한·중·일 무형유산 초청공연

### 전주시, 8~9일 동아시아 3개국 전통 공연·연극 '환대-각자를 맞이하는 방식' 주제 개최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에서 한·중·일 3국을 대표하는 무형유산 초청공연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8일 오후 5시와 9일 오후 3시, 총 2회에 걸쳐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에서는 '환대-각자를 맞이하는 방식'을 주제로 한·중·일 무형유산 초청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주 교방무용(동초수건춤, 전라삼현승무, 예기무, 전주검무) △일본 아타미 권번 예기무용(시마노센자이, 마츠노미노리, 에치고지시) △중국 쓰촨성 전극원 전통연극(등불놀이, 변검, 화상용, 난마) 등 동아시아 3개국의 전통 공연과 연극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초청공연과 더불어 동아시아 3국

의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는 특별강연도 마련된다.

먼저 오는 8일 오후 3시 국립무형유산원 책마루(라키비움)에서는 마에하라 메구미 국립동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실장이 '일본권번의 역사와 예기무용'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는 공연과 연계한 오수경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의 '중국의 희곡 전통과 친극의 전통'에 관한 특별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공연 예매는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이 전주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넓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린이는



'환대-각자를 맞이하는 방식' 포스터

물론 청소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미술, 음악,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일 교류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와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6일 시청 강당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주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가졌다.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행복한 전주'

### 시·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가져

전주시와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영이)는 6일 시청 강당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주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가졌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행복한 전주'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행사는 △기념식 △양성평등 실천 결의 낭독 및 퍼포먼스 △주제 영상 상영 △축하공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확인에 모범을 보인 시

민과 단체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여성친화기업 등 10명이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강영이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사회 각 분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증진에 앞장 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양성평등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여성과 남성이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 함께하자"고 말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7일)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의거해 국민적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주간으로, 기념행사와 유공자 격려 등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해마다 열리고 있다.

/김옥기 기자

## 세계적 미식 이벤트 '디네앙블랑 전주' 10월 7일 열린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에서 한옥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순백의 만찬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7일 세계적인 미식 이벤트인 '디네앙블랑(Le Diner en Blanc) 전주 2023'을 개최한다.

'디네앙블랑'은 세계적인 시크릿 디너파티로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수아 파스키에(Francois Pasquier)가 지인들과 함께했던 파티에서 유래했다. 지난 1988년 파리에서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약 10만 명이 참여하는 글로벌

미식 이벤트로 유명하다.

디네앙블랑은 '프랑스 공정 문화를 재현한다'는 취지에 맞춰 참가자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아함을 보여주는 '화이트 드레스 코드'를 갖춰야 한다.

디네앙블랑의 대표 프로그램인 △넵킨 웨이트 △스파클러 점프 △베스트 드레서와 커플, 테이블을 뽐는 시상식 등 그대로 진행되며, 여기에 국내 유명 아티스트 공연과 디제이 파티도 더해져, 오감이 즐거운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디네앙블랑 전주 2023의 입장권은 오는 30일까지 티켓링크와 네이버예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입장권(2인) 12만 원을 기본으로 테이블과 의자 대여, 디너 세트 포함 등 옵션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전주 음식 문화의 전통적 이미지를 벗어나 패션과 엔터테인먼트 등 예술 분야와 어우러지는 감성 미식으로 전환해 전주가 글로벌 미식도시로 브랜드링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보건소, 복지관 이용 어르신 치매 예방 교육

전주시가 치매 예방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고 나섰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3일간 덕진노인복지관과 안골노인복지관, 큰나무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을 위한 '치매예방 및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치매 바로 알기(치매의 정의, 증상, 사례) △치매 예방 수칙 및 관리방법 △치매파트너 교육 및

동영상 상영 △치매예방체조 교육 등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한 치매파트너들은 향후 일상에서 만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먼저 다가가 배려하기 △주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꾸준히 연락하고 안부 묻기 △교육을 통해 배운 정보를 주변에 알리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치매 예방 교실과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인지재활(컴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치매무료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지원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인식개선사업 △치매환자가족자조모임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조호물품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도 치매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 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치매안심센터는 그동안 복지관과 경로당, 시니어클럽 등 26개소 1345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

/김옥기 기자

## '금품살포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 항소심 재판부 '김종식, 최초 진술 어긋나자 이에 맞추기 위해 번복'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68) 전북 군산시장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유죄를 유지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금품수수 혐의의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과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을 상대로 제출한 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강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과정에서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한 번에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점,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경선에서 낙선한 이유가 강 시장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여긴 점,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고인인 김종식이 최초경찰 진술에 이어 몇 차례 변경이 되고 있는데 당시 범행시각과 장소인 강임준의 선거사무소 상황이 혼잡한 상황이었다는 점에 비추볼 때 김종식의 진술이 사실인지 의심이 든다는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서 "불명확한 기억에 따라 착오가 있었던 것을 다시 정확히 진술하는것 보다는 (김종식이)최초진술이 어긋나는 상황이 드러나자 이에 맞추기 위해 번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회유과정에서 강임준이 서지만(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대표)에게 일처리를 맡긴 것은 분명하나 이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폭로로 인해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 행동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강임준이 매수라고 해서 진술을 번복시키라는 것인지만 철회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진바 없고 매수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은 점, 이 사건은 서로 맞물려서 회유가 인정되면 금품제공 사실도 인정해야하는데 금품의 수수사실이 인정하기 어려운 이 경우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다시 회유할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뉴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 BAN

# DIN

2023.

9/2(토) - 9/10(일)

주최: 무주군

주관: 무주반딧불축제재정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자연환경부

주소: 전북 무주읍 무주읍 최북로 15    문의: 063)324-2440